

고부가가치 의상디자인을 위한 소재개발연구

-타피스트리를 중심으로-

홍 성 미*(이화여자대학교 생활환경대학 의류직물학과 석사과정)

이 인 성 (이화여자대학교 생활환경대학 의류직물학과 교수)

현대 패션은 감각산업으로 대두되면서 디자인 못지 않게 소재의 다양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창의적 제품을 선호하는 트렌드의 경향으로 다소 고가라 하더라도 자신만을 위한 독특한 아이템의 인기가 상승세이며, 핸드크래프트 기법을 이용한 아이템들이 각광을 받는 추세이다. 패션에 있어서도 고감각적인 현대인들의 성향에 맞추어 창의적이고 고급화된 의상을 창출해내기 위해 소재개발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창의적인 소재의 개발을 위한 방법으로 직물의 기본 조직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타피스트리를 응용한 소재개발에 중점을 두어 핸드메이드의 특성을 살린 고부가가치 의상으로서의 발전가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최근 5년 간의 해외 패션잡지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소재들이 수공 과정을 통해 새로운 소재로서 개발된 사례를 고찰하고 타피스트리를 이용한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사용된 기법과 소재를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의상 작품 4점을 제작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대 패션디자이너들 중 Alexander McQueen, Givenchy, Jean Paul Gaultier, Paco Rabanne, Thierry Mugler 등과 같이 전위적인 작품들을 선보였던 디자이너들에게서 실험적인 소재개발이 많이 보여졌으며 소재에 있어서는 모피나 가죽, 플라스틱, 금속, 테이프 등이 사용되었다. 또한 타피스트리 기법에 있어서는 플레이팅과 평직, 파일, 루프 등이 나타났다.

현대 패션디자인에 있어서 소재의 개발은 새로운 패션의 흐름을 유도하고 디자이너의 창조성을 자극하여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타피스트리는 기본 평면의 조직위에 기법과 구조, 재료들의 조합방식에 따라 다양한 질감과 형태의 표현이 가능하므로 디자이너의 의도에 따라 표현이 다채로울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품 제작의 결과로 동일한 기법에서도 재료의 선택에 따라 직물 표면의 질감과 색채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 다양한 디자인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핸드메이드라는 메리트를 실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으로 현대인들의 새로운 패션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디자이너의 독창성과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타피스트리는 다양한 소재개발에의 가능성과 함께 현대 패션디자인 개발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